

남원,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간부회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7건 적극적인 국회 상주활동 당부

남원시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환주 시장은 1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회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나서는 사업은 총 7건으로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를 위한 R&D(20억)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30억4천만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국비10억) ▲지리산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국비10억) ▲남원의료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국회 25억5천만원) ▲남원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국비10

억) ▲국도24호선(인원 서무 회전교차로 건설사업(국비8억) 등이다.

회의에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 심사가 15일, 예결위 심사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국회 상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큰 힘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366억원의 사업을 들여 남원관광지 일대에 추진하는 모노레일, 쥘와이어, 어드벤처시설, 남원랜드 활성화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만전을 기하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 마무리에 보다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내년 5월 남원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며, 대행사 선정의 공정성과 시설물 개보수 요구에 따른 시설개보수 예산(도비 11억) 부족에 따른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소스토클 전년보다 관광객 144% 증가

전시시설부터 다양한 체험시설 방문객 확대 이끌어

순창발효소스토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4%로 대폭 증가하며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기준 발효소스토클 방문객이 7만80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230명에 비해 14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라면 발효소스토클 방문객 수가 최초로 십만명 돌파는 기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이 3대 비전으로 내세운 '관광객 5백만명' 돌파를 위한 발걸음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바수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발효소스토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에는 시원한 실내온도를 뽐낼 수 있다.

이는 실내온도가 에어컨 가동 없이도 20도나 될 만큼 서늘한 기온이어서 방문객들로 여름철 피서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10월 열렸던 2019 순창발효소스토클제막회가 성공을 거두며, 방문객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토클내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확대도 배움을 수 있다.

고조년부터 현대사대에 이르기까지 장(醬) 역사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

도록 전시관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인 '장(醬)'의 학습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 가상현실 체험장비도 방문객 확대에 한 몫 했다. 지난해 단 순히 눈으로만 즐겼던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에 더해 올해 호남지역 최초의 트레이드밀 옴니(Omni) 장비를 이용한 FPS(First-Person Shooter) 방식의 가상현실(VR) 4종을 추가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 직접 몸을 움직여 콘텐츠에 참여하다 보니 박진감과 현실감이 높아 청소년층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치즈 디저트, 요리대회 수상 휩쓸어

삼색한입호떡 등 일반부 1위 해수부장관상 등 3개 받아

임실N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

임실군은 최근 개최된 제 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3팀 6명이 참가해 양수부장관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생활산업진흥원장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전북도민의 차별화된 음식과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삼색한입치즈호

떡(박미영, 전노영)팀은 일반부 1등인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치즈한상'(이명희, 정영애)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치즈죽'(임정숙, 백영숙)팀은 생활산업진흥원장상을 각각 받았다. 일반인과 대학생 등 총 55개팀의 조리기능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지난 달 31일부터 이날 2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군은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의 일환으로 임실N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문화예술갤러리에서 16회 운영 중에 있으며, 임실군 향토식품인 임실N치즈와 베이커리를 융합한 디저트 교육을 통하여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11일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제24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농업인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00명 참석... 회원들 참미 50포대 기부

남원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11일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제24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농업인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이 우리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올 한해 노고에 대해 서로 위로하고 진목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농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선도적 역할로

고품질 쌀 부문에 사매면 오정섭 씨, 원예특작부문에 금지면 유기홍 씨, 과수부문에 운봉읍 박정택 씨, 축산부문에 금동 전영기 씨, 임업부문에 산내면 오점수 씨가 남원시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나상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강조 남원시 원예산업과장, 박노현 NH농협 남원시지부장이 남원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회원들이 심시 일반으로 모은 참미 5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남원시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농업인의 날 행사 성황

1000여명 참석 노래자랑 등 흥겨운 시간 가져

순창군이 지난 11일 향토회관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마련되어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4째를 맞이했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과 전통놀이 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건강한 땅 가꾸기, 녹비재배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최경주 강사가 특강을 진행해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점차 중요시되는 친환경농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1부 행사로 순창읍 이경자 씨 등 읍면별로 1명씩 총 11명의 주민이 순창군수 표창장을, 이외의 3명의 주민들도 위원장 감사패를 받으며, 고된 한해 농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투호놀이와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함께 노래자랑으로 이어진 2부에서는 읍면을 대표하는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원인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에는 군민의 희망이 담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 주요정책에 대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내정된 손종석 위원장은 "농가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

남원시는 지난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디자인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환주 시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매우 친절한 남원시정 만들기를 채택하고 친절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결집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급~6급 공무원 100여명이 원탁에 모인 것이다.

이날 원탁회의의 주제는 공무원 내부의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가치 창출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 개선을 통한 공무원 현장감수성 제고, 부서 간 협업문화 역량강화,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제거 및 보고체계 간소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과 동기부여 필요 등에 대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자고 당부하며, 원탁회의를 통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의미와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